

김용민브리핑

2016년 11월 8일 화요일

발행처 일곱시간행복그네

홈페이지 <http://www.podbbang.com/ch/9938>
 전자우편 kimyongminpd@gmail.com
 텔레그램 <https://telegram.me/kimyongmin>

| | |
|------------------------|------------------------------|
| 60일의 건강보험증 | 02-766-1004 |
| 아름다운재단 | www.beautifulfund.org |
| 전통방식 속성! 최고의 맛은 | 1599-6456, 010-9384-7970 |
| 알싸한홍어 | alssahan.co.kr |
| 대한민국 1등 품질 홍삼은 | 041-754-0884, 010-9754-6972 |
| 정성농장홍삼 | jeongseongfarm.com |
| 안티요! 다이어트 쇼핑몰은 | 031-783-6007 |
| 비타샵 | vitashop.co.kr |
| 예쁜 구멍이 쫌! 장 청소는 | 070-4115-0365, 010-2892-0365 |
| 미궁장사랑 | jangsarang.com |
| 아이에서 어른까지 안심 사용하는 | 1688-9113, 031-717-1613 |
| 수아비스화장품 | www.suavisslab.com |
| 한 번 가면 계속 가게되는 | 031-902-9292 |
| 풍무양고기 |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770 삼희포시즈프리카 2층 |
| 세계 최고 브랜드에 10년 품질보증 |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2번길 28 |
| 매트리스옴 | www.mattressm.com |
| 진보가 만든 상품판매몰은 | 032-519-4800 |
| 네페알 | nepr.co.kr |
| 정통 포루투갈 에그타르트! | facebook.com/tartfarm13 |
| 에그타르트 타르트팜 키넥스점 | 고양 일산서구 대화동 2602 레이킨스몰 154호 |
| 김치맛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 1544-4586 |
| 이담채김치 | edamche.com |
| 3D 실물 피규어 수공예품 제작 | 010-5633-6036 |
| 메이드바이어스 | madebyus.co.kr |
| 김영란법 걱정 없는 최고의 선물! | 070-8635-1288 |
| 전창걸의새싹땅콩차 | 전창걸.com |
| 축하 위로 고백 응원에는 | 1566-0263 |
| 좋은사람과플라워 | flowergood.co.kr |
| 월1만원 화재보험카페 그리고 | 02-849-9730 |
| 월7천원온전자보험카페 | cafe.daum.net/7000kim |
| 내 아이 믿고 먹을 수 있는 | 010-2443-0818 |
| 와우전복 | wowabalone.modoo.at |
| 한우 사육에 가마솥에 팔팔 끓인 | 010-7252-1114, 031-989-9968 |
| 연지연곰탕 |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5 |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아세요?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지역 있는 나라가
 원자력안전기구가 동시 및 중대사고 대비 없는 나라가
 지진 위험지대지만 내진설계는 20-30배 낮게 적용한 나라가
 사고 나지 않았음에도 갑상선암, 핵폐기물 등의 문제 발생을 야기하는 나라가
 이 많은 핵발전소를 안 만들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걸요!
 원자력으로 불리지만 본질은 핵인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



하야 없는 대안 없다

김용민 / 김용민브리핑 대표 프로듀서

대통령 박근혜 씨가 민심을 듣겠다며 종교지도자들을 불렀고 부를 예정입니다. 누가 초청대상이었을까요? 평소 이명박 씨와 가깝고,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나경원 씨 선거운동하러 다녔으며, 도박, 폭력, 부패, 술집 출입 등의 문제로 일찌감치 불교계에서 정화의 대상으로 꼽힌 자승 총무원장이 초대됐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가족이 진상규명을 위해 일상을 포기하고 풍찬노숙을 마다하지 않을 때 "유족이 양보해야 한다"라며 유족 가슴에 대못을 박았고, 천주교인인 백남기 농민이 1년 가까이 병상에 있을 때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천주교 몫으로 초대됐습니다. 아울러 지난 박정희 유신정부 시절, 미국에 건너가 유창한 영어실력으로 인혁당 사건 등 온갖 국가폭력을 옹호했으며, 12.12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찬탈했던 전두환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아시아 말쑥을 읽어주는 등 정치목사의 진면모를 선보인 김장환 목사, 세월호 침몰이 대한민국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려 없는 망발을 입에 올린 김삼환 목사를 개신교 몫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들이 과연 시중에 들끓는 민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박근혜 씨는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비판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 서인지 자기 귀에 달달한 말을 하는 사람만 만나려고 합니다. 거의 병적입니다. 자기 손으로 임명장을 건넨 총리, 장 차관, 수석비서관까지 멀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최순실, 문고리 권력 정도만 가까이 하다가 이 사달을 자초했습니다.

배신에 치를 떨어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할 수 있다는 온정론도, 아주 소수지만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직 유지의 명분이 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민주공화정을 채택한 이상, 자격 자질 능력 있는 사람만 대통령을 해야 합니다.

박근혜 씨의 대통령직을 보장하되 권한을 일부 제한만 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매우 무책임하고, 기회주의적입니다. 지금 박근혜 씨는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치료 받아야 할 정신적 유고 상태입니다. 안보, 외교,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철학 있고 능력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에 14개월 동안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을 정점으로 이 체제를 더 유지하자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체를 도탄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주장하는 대로 박근혜 씨의 즉각 하야를 위해 모든 정치세력이 뜻을 모을 때입니다. 박근혜 씨 체제를 유지하자는 세력의 불온하고 무책임한 발상을 규탄합니다. 이 문제에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오 | 늘 | 의 | 김 | 용 | 민 | 브 | 리 | 핑

■ 11월 8일(화) 1부 | "대놓고 갈취" 박근혜 범죄행각 속속 드러나

[오프닝] '박근혜 체제 유지?' 이런 무책임과 기회주의가 또 어땠나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박근혜, 신동빈 따로 불러 대화...이후 롯데로부터 70억 입금

-정호성, "박근혜가 최순실에 청와대 기밀문건 넘기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수석회의에 이거 논의하라"는 최순실 지시 녹음파일 발견

-조폭에 "딸(정유라) 가출·남자와 동거월 2천만원 낭비 해결해달라"

-"블랙리스트 없다"던 장관 조윤선, 알고보니 본인이 작성한 듯

[뉴스듣기능력평가] 박근혜 좋아하는 '로마서12장'...저자는 누구일까

[국제뉴스의 맥] 황준호 외교통일전문가자

-미국 대선 결과 내일 낚뚝...신중히 예측하자면 힐러리 승기 잡은 듯

-내치는 책임총리가 담당하고 외치는 박근혜가? 큰일 날 소리!

[공화국 논평] 대통령 탈당·친박 정계은퇴 주장한 김무성에 대한 조치

국정농단의 본질, 박근혜 게이트

경향신문 “하야가 국민합의이고 애국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시민들은 대통령 박근혜 씨의 하야를 촉구하고 있다. 중앙일보 칼럼을 통해 대통령 하야를 주장했던 연세대 박명림 정치학 교수가 이번엔 경향신문 기고를 통해 더 선명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이 끝내 하야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말 것이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환부인 것이다. 국민항쟁을 통해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면 질병은 대한민국 전체로 번지고 말 것이다. 하야가 정답인 이유다. 이번 국민항쟁은 정의로운 국민권력과 불의한 정권집단의 격돌이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한겨레 수사 앞둔 신동빈이 70억을 낸 까닭

올해 초 검찰은 롯데그룹을 내사 중이었다. 이때 대통령 박근혜 씨는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을 독대했으며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추가 지원금을 요청한 혐의가 의심된다. 미르·K스포츠 재단에 이미 45억원을 출연한 롯데그룹이 지난 5월 70억원을 추가로 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의 검찰 진술과 다이어리에서 확인됐다. 결국 지난 6월 롯데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기 직전 70억원은 돌려받았다. 박근혜 씨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포괄적 뇌물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朝鮮日報 정호성 “차이 문건 유출하라 지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청와대 기밀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으로 불리던 인물이다. 그는 대통령 박근혜 씨의 지시로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또한 검찰은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박근혜 씨와의 통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다수 확보했다. 녹음 파일에는 박근혜 씨가 최순실에게 문건을 전달하라고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검찰의 박근혜 씨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중앙일보 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도 관장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 검찰이 확보한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음 파일에는 최순실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의 일정과 의제 등을 지시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최순실이 상사로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말투여서 조사하던 검찰 수사관이 깜짝 놀랐다고 한다.

대통령 주재로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에 최순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東亞日報 朴, 국무회의에서 정유라 관련 발언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 동아일보가 국무회의 회의록을 분석해 봤다. 그 결과 대통령 박근혜 씨는 최순실과 관련된 발언들을 여러 번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스포츠 비리 척결 주문이 대표적이다. 스포츠 비리 척결은 정유라를 위한 명분이었다. 정유라가 전국승마대회에서 우승을 하지 못하자 최순실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고,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씨의 비리 척결 발언이 나오자 승마협회는 발칵 뒤집어졌다.

잇으면 섭섭한 최순실

朝鮮日報 崔, 조폭에 정유라 남친 정리 부탁

지난해 7월 최순실과 그의 언니 최순득은 폭력조직 간부를 만났다. 폭력조직 간부 앞에서 두 자매의 행동은 거침이 없었다. 지인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참석했다는 폭력조직 간부는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또한 최순실은 이 자리에서 정유라에게 붙은 남자를 떼어 달라고 부탁했다. 정유라가 서울 신림동에서 남친친구와 동거를 하면서 한달에 200만원도 넘게 쓰며 속을 썩인다는 것이었다. 한눈에 봐도 두 자매를 이상하다고 느낀 폭력조직 간부는 제안을 완곡하게 거절했다고 한다.

東亞日報 검찰, 최순실 알선수재 혐의 검토

삼성은 최순실이 독일에 세운 비텍스포츠의 전신인 코레스포츠에 35억을 송금했다. 또한 미르·K스포츠 재단에는 204억원을 납부했다. 이에 검찰은 재계 1위 삼성을 수사하고 있다. 최순실을 통해 공무원에게 청탁을 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삼성은 독일에서 최순실을 직접 만나 송금과정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삼성이 최순실에게 구체적인 청탁까지 벌인 정황이 포착될 경우 최순실은 알선수재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다.

치졸한 청와대

노컷뉴스 靑 “기공식에 야당의원들 부르지 마라”

지난 5월 대통령 박근혜 씨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장항동 K-컬처밸리 부지에서 열린 기공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씨는 K컬처밸리가 문화창조융합벨트의 화룡점정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그러나 이 기공식에는 지역구 의원들이 한 명도 참석하지 못했다. 당시는 박근혜 씨가 '입을 위한 행진곡' 제창 거부와 상시 청문회법 처리 문제로 야당과 각을 세우던 시기였으며 고양시 지역구 의원 4명은 모두 야당 소속이다. 전직 CJ그룹 관계자는 지역구 의원들을 부르지 말라는 청와대 측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힌거리 조운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문화체육관광부 조운선 장관과 정관주 차관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료들을 비롯한 다수의 전·현직 관료들이 밝힌 내용이다. 관료들의 증언에 의하면 정무수석실은 지원하지 말아야 할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들의 명단을 작성했다. 또한 이 명단을 교육 문화수석실을 거쳐 지원사업 선정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당시 조운선 장관은 정무수석이었고, 정관주 차장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 현직 장·차관이 블랙리스트 작성의 책임자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이화여대, 물러날 사람 또 있네

경향신문 부패 권력 맛 들인 이화여대 교수

이화여대 류철근 교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소설을 집필했었다. 그런 류철근 교수가 '청년희망재단'의 초대 이사에 이름을 올렸었다. '청년희망재단'은 대통령 박근혜 씨가 제안하고 대기업들이 단기간 내에 수백억원을 모금해 설립된 노동계의 '미르·K스포츠 재단'으로 불린다. 류철근 교수가 '청년희망재단'의 이사가 된 배경에는 차은택과의 친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화여대 교수인 류철근 교수는 정유라에게 학점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최태민 모녀, 대를 이은 부정축재자들

東亞日報 “최순실 일가 재산 환수해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직후 검찰은 최태민을 수사했지만 재산 15억원의 행방이 밝혀지지 않았다. 당시 서울의 아파트 한채 값은 약 2000만원이었고 현재는 30배에서 40배 가까이 가격이 올랐다. 최태민이 숨겨둔 재산의 덩치가 컸고, 그게 최순실 일가 재산 축적의 종자돈으로 쓰였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돼 있을 최태민의 재산 내역을 밝히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최태민 추정법'을 제정해 부정 축재 재산은 국가가 환수할 필요도 있다.

버리는 카드 맞았네

朝鮮日報 친박계도 버리는 김병준 총리 후보

새누리당 지도부가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김병준 신임 총리 내정자가 아니어도 새로운 총리 후보가 합의를 된다면 그 사람으로 총리를 내정하자는 의미다. 이에 새누리당 친박계에서도 기류가 바뀌고 있다. 친박계 좌장인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김병준 카드는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또한 총리 추천권을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친박계 내부의 이런 변화에는 김병준 카드를 계속 고집하다가는 자신들의 정치적 장래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연간 출생아 '40만 명' 붕괴 위기

東亞日報 2016년, 출생아·결혼 수 역대 최저

동아일보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태어난 출생아는 약 28만명으로 나타났다.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2016년은 아이가 가장 적게 태어난 해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결혼하는 부부 수도 계속 줄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결혼 건수는 약 18만건으로, 역대 가장 결혼 건수이다. 이 때문에 1, 2년 안에 저출산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연간 출생아 '40만 명' 선이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오늘의 칼럼

힌거리 “박근혜 퇴진 운동의 진로”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한양대 이도흠 교수가 힌거리에 기고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의 진로”입니다. 일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대응에 따라 좋은 나라가 도래할 수도, 현상이 유지될 수도, 반동 정권이 들어설 수도 있다. 분노한 다음날이 중요함은 자명하다. 이제 운동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1차 목표는 퇴진과 구속이다. 대통령의 퇴진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 2차 목표는 기득권층의 교체와 개혁이다. 3차 목표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생태복지국가로서 민주공화국의 건설이다. 광우병 때도, 세월호 때도 대중의 분노는 석달을 넘기지 못한 채 거리에서 마음으로 숨어버렸다. 대중들은 이 정권과 기득권층이 어떤 기만책을 쓰고 이에 보수야당이 타협하더라도 현혹되지 말아야 하고, 운동의 지도부는 대중들의 다양한 분노를 모으고 지향성을 갖도록 인도해야 한다.”